

[ 기획 ]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력기획

근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3륜 자전거를 손잡고 실어나르는 리스꾼은 하루 수십km를 달려서 한화 4~7천원 정도를 번다. 이마저도 리스를 소유한 회사에 받은 건네야 하지만 취업률이 낮은 방글라데시에서는 리스꾼이 되는 것도 쉽지 않다. 지난달 2일 다카의 굴산시장 인근에서 리스꾼들이 줄지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인력기획자 ahj@kwangju.co.kr

(2부) 코리안 드림 꿈꾸는 그곳에선

4 방글라데시 불법 인력송출 실태

브로커에 속아 결혼도 못하는 먼투씨 “불법으로 샀던 여권이 문제 나도 모르는새 3차례 결혼”

먼투(31)씨는 지난 1997년 7월 방글라데시 브로커에게 8천 달러(한화 800만 원)를 주고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 경기도 일대를 떠돌며 불법체류자 생활을 한 것만 10여년. 힘든 상황에서 지난 2005년 애인 이진숙(28)씨를 만났고, 이듬해 11월 결혼까지 약속했다.



문제는 혼인신고 과정에서 생겼다. 국제결혼의 특성상 혼인신고를 마치고 식을 올려야 하지만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혼인신고 서류를 계속 반려하는 것이었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먼투씨도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결국 강제추출 당했다. 아내 이씨는 혼인신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 임신한 몸을 이끌고 방글라데시로 건너갔다. 하지만 이씨는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남편이 그동안 3번이나 결혼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남편이 한국으로 건너올 때 브로커에게 넘겨졌던 여권이 문제였다. 브로커들은 먼투씨의 여권을 불법신고하고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여권을 만들어 냈다. 또 이 여권으로 신분을 위장한 남성을 한국인 여성과 결혼시키고 한국국적을 취득 시킨 것이다. 먼투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세 번 혼인한 남자가 되버린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방글라데시에 주민등록제도가 없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한 사람이 이름과 나이를 바꿔서 여권 10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 정도다. 결국 먼투씨와 이씨는 방글라데시의 한 한국어학원에서 일을 도우며 혼인신고 서류가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인력기획자 ahj@kwangju.co.kr

판치는 브로커들... 전 재산 털린 피해자 속출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7천여명의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수는 그보다 많은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1억5천만여명이인 방글라데시에서는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질러 취업이 어려운데다 주민등록 제도가 없어 출입국 관리가 허술한 것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 다카(Dacca)에는 ‘한국행’을 미끼로 젊은이들의 돈을 가로채는 전문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행’ 1,200만원 요구

대학생인 리호만(23)씨는 지난 2월 초 한국에 능력시험 점수를 끝낸 직후 인력송출업체 브로커에게 한국행을 대가로 20만 다카(한화 300만원)를 건넸다. 그는 시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한국으로 갈 수도 있지만 ‘혹시나’하는 불안감과 ‘한국에 못 가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속

아 넘어간 것이다. 심지어 리호만씨는 시험 당일 ‘답안지에 답을 표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브로커 말을 믿고 그대로 실행했다가 두 달간 준비했던 시험마저도 떨어졌다.

취재진은 불법적인 인력송출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 어렵게 리호만씨를 설득, 브로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지난달 1일 오후 통역을 거쳐 인력송출업체의 가장 하부조직인 모집책 로비(45)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사는 “한국기업체에서 온 직원이고, B(32·통역)씨를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그에게 말했다. 로비는 “내일 10시쯤 만나자. 장소를 다시 알려주겠다”며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줬다. 다음날 오전 다카 외곽 오주캣 시장에서 쌀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모집책 로비를 만났다.

기사는 “한국에서 B씨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고,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 도와 달라”고 잡짓 부탁했다. 로비는 “지금까

지 200여명을 한국에 보내왔다. 예전보다는 인력 송출이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문제없다”고 장담했다. 로비는 “한국에서 오신 손님이니 특별히 자신의 뒷선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어디론가 전화를 해줬다. 취재진은 오토리사(3천원)를 잡아타고 그가 안내해준 곳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다카에서도 변화가 속하는 굴산시장 상가건물 내부였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피루스란 남자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 대표라며 명함을 건넸다. 인력송출은 부업이라고 했지만 사무실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에 너무 낡은 기종이었다.

피루스는 ‘한국행’의 총 경비가 80만 다카(한화 1천200만원)라고 밝혔다. 엄청난 액수다. ‘B인터 내셔널’이라는 유령업체가 한국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한국으로 직원을 보내는 것처럼 위장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최대 5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 한국어시험도 필요 없다”며 “착수금 25만 다카와 여권, 사진 8장을 준비

하라”고 말했다. 또 “원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지 않지만 한국사람이 와서 직접 만나겠다”며 “만약 3개월 이내에 한국에 가지 못하면 돈도 돌려주고, 영수증도 써 주겠다”고 안심시켰다.

현지 정부 단속 엄두도 못내

속칭 ‘팬쉬 비즈니스’라고 불리는 이곳의 인력 송출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자금을 끌어 모아 빌딩을 올리고, 사세를 확장시켰다. 돈을 쟁긴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은 기본이고, 오히려 돈을 되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를 치며 시간을 끌다가 건물 임대료를 받아 조금씩 돈을 내주기도 한다.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인력송출업체들의 힘이 워낙 막강해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방글라데시 젊은이들은 실낱같은 희망으로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있다”고 현지사정을 설명했다. /방글라데시 다카=인력기획자 ahj@kwangju.co.kr



브로커인 피루스(사진)는 다카시내 상가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차려놓고 신분을 위장하고 있었다. 통역을 맡은 B씨와 피루스가 ‘한국행’에 대한 액수를 협상하는 동안 그의 얼굴을 몰래 촬영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various properties, including '대인동상일부동산', '일가공인중개사',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지공인중개사', '금보부동산컨설팅',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and '한일지도판매(주)'. Each listing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the properties for sale or rent.